

“수도권 규제완화시책 철회해야”

지역균형발전협,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반발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와 수도권 공장 총량 확대 등 창업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제도와 함께 수도권의 공장 면적을 늘리고 동시에 공장 증설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와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포장한 수도권 규제완화시책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비수도권은 정부가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름 아래 수도권지역 공장건축 총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에 1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창업하는 중소기업

업체에는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부금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공장설립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평당 면적 5천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도 140만평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를 신규 채용 인력의 50%(50명 한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투자와 관련해 8건의 신청을 접수해 이중 4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계획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도록 2006~2008년 수도권지역 공장

건축총량을 1천224만㎡로 설정해 2004~2006년의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지역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이지만 수도권에 대한 공장 증설 및 신설이 용이해질 뿐만 각종 혜택이 늘어 지방 투자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8일 오전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열린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권오규(맨 좌측) 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여수서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

한명숙 총리 등 참여... 정부 유치 의지 강력 표명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앙 유치지원위원회가 29일 여수에서 개최된다.

지난 5월16일 서울에서 열린 1차 유치지원위원회와는 달리 여수 현지에서 열리는 이번 위원회는 여수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수시청에서 열리는 중앙 유치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추병철 외교교통상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김재철 중앙유치지원위원장이 참석한다. 현지에서 열리는 엑스포 각료 회의인 셈이다.

또 전남도에서는 박준영 지사와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오현섭 여수시장

과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오찬을 겸한 회의를 갖고 현재까지의 세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곧바로 오후도 홍보관을 시찰한 뒤 국도 17호선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 진척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박준영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국립 해양과학관 건립이 필수적인 만큼 2012세계박람회 기본계획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해양전시실과 전망대, 수족관,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해양과학관은 덕충동 여수신항 인근 1만여 평의 부지에 지어지며, 1천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2012년 세계박람회는 여수에 이어 폴란드의 부



EXPO 2012 YEosu KOREA

를 유치하려는 국가는 오는 11월2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2 세계박람회는 오는 2007년 상반기 BIE의 현지실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98개 박람회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중앙유치지원위원회가 여수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14일 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회 건교위원 초청 만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한명숙 총리에게 박람회 관계장관회의 여수 개최를 건의했고 한 총리가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로츠와프와 모로코의 당헤르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앞으로 또 다른 국가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는 한 3과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2012박람회를 유치하려는 국가는 오는 11월2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2 세계박람회는 오는 2007년 상반기 BIE의 현지실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98개 박람회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중앙유치지원위원회가 여수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 14일 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회 건교위원 초청 만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한명숙 총리에게 박람회 관계장관회의 여수 개최를 건의했고 한 총리가 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홍일 유죄-박지원 무죄’... 엇갈린 판결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장남인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날 대법원에서 명암이 엇갈린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침묵으로 복잡한 심사를 대신했다.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 관련 혐의를 벗은 박 전 장관과 나 라종금 인사청탁 의혹으로 금배지를 잃게된 김 의원의 처지를 지켜보는 김 전 대통령의 마음이 ‘다행반 아쉬움반’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박 전 장관에게는 무죄선고가 내려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해 아버지로서 아들의 정치적 추락을 지켜야 하는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 셈.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

은 이날 “박 전 장관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4년 동안 재판과 옥살이를 했는데 오늘 대북송금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며 “정부는 박 전 장관을 즉각 석방하고 사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비서관은 김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며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 증언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지만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만 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박 전 장관 무죄 확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의 전횡이 자 무려 20년형을 구형한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인 관련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특별법을 밑거름인 노 대통령의 역사적 오만이 직접적 배경이 됐고,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초래한 근인(根因)이 됐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김홍일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적용된 앞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제시한 인사청탁 등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공판과정에서 일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에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공기업 감사들, 판공비로 정치 후원금

한나라 이계진의원 주장

“부조금·만화책 구입도”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고액의 판공비를 받아 불법적인 용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이 의원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문광부 산하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터 제출받은 ‘삼일감사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감사들은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월평균 300여만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공비 내역을 살펴보면 골프비, 만화책 구입, 부조금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정치인 후원금에 사용되는 등 불법사태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회관 A감사의 경우 6차

회 EBS의 C감사는 38개월의 재임기간에 경조사비 73건을 판공비에서 지출했으나 확인 결과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들에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대권주자 국가론’ 비교

열린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이 28일 정치권 안팎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국가론을 비교,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추최로 열린 ‘2007년 대선과 민주개혁세력의 진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론이 차기 대선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이 분

박근혜-정상국가, 이명박-일자리창출 국가, 고건-통합국가, 김근태-빅딜 복지국가

석한 대권주자들의 국가론의 장단점을 열거했다.

민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정상국가론과 선진국가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일자리창출 국가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신문명시대론과 선진국가론으로 분류한 뒤 ‘비전 부재와 이 미지 정치’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김근태 당의장의 국가론에 대해선 빅딜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복지국로 설명했고, 정동영 전 의장은 귀국 이후 ‘통일국가론’에 관한 담론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건 전 총리는 ‘통합국가론’과 ‘선진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선풍리

무담보, 무보증 합계분할 구입 가능

152만원 파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일부

1588-8717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이 고민이라면, 허벅지 살이 걱정이라면, 변비 고민이라면,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이 고민이라면, 허벅지 살이 걱정이라면, 변비 고민이라면,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이 고민이라면, 허벅지 살이 걱정이라면, 변비 고민이라면, 개미허리 23인치

● 뱃살이 고민이라면, 허벅지 살이 걱정이라면, 변비 고민이라면, 개미허리 23인치